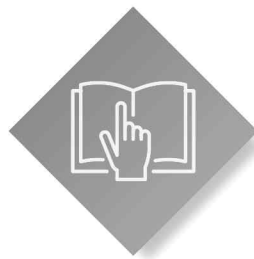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4.10.16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FP10에서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통합 시나리오 ... 집행위 차기 다년도 재정 계획 개정안 비공식 공개(10.10)
- ② 유럽의회, 연구, 보건, 교육, 기후행동에 중점을 둔 EU 2025 예산결의안 채택(10.14)
- ③ EU-이집트, 이집트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공식 협상 개시(10.10)
- ④ 대학 그룹, 연구 보안에 대한 일관성 강화 촉구(10.15)
- ⑤ 산업계, EU 내 민간 보안 연구 및 배포를 위한 투자 증대 요구(10.10)
- ⑥ 집행위,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OSC) EU 노드 출시(10.11)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호라이즌 유럽 제3국 참여 현황, 호라이즌 2020 대비 참여 감소 ...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10.15)
- ② 집행위, 회원국의 GDP 대비 유럽연구위원회(ERC) 및 마리퀴리(MSCA) 프로그램 참여 결과 발표(10.15)
- ③ EIC Accelerator 참여 현황(10.10)
- ④ Erasmus Days 2024 행사 개최
- ⑤ (SB펀딩레이더) 정신건강 관련 주요 공고(10.15)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정신건강과 재정적 결정 간의 관계 탐구 프로젝트
- ② (연구모음)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미래 섬유 산업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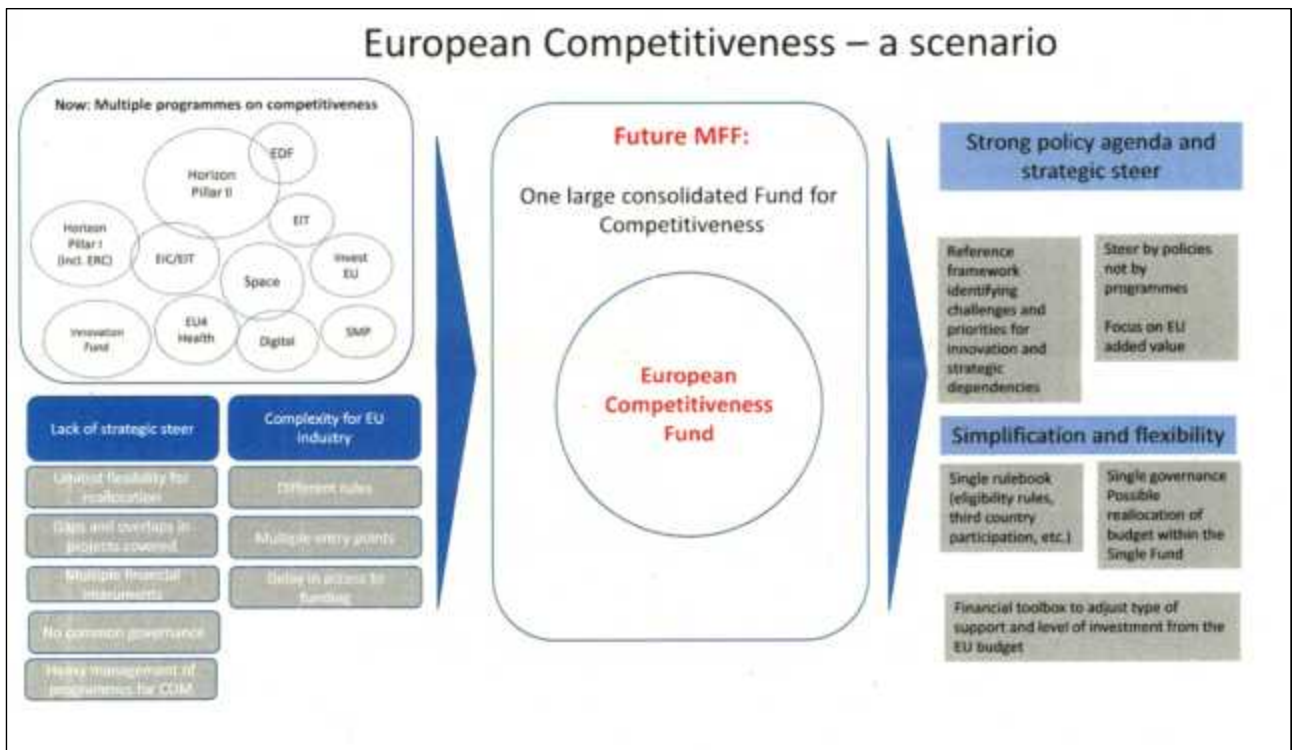
1] FP10에서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통합 시나리오 ... 집행위 차기 다년도 재정 계획 개정안 비공식 공개(10.1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새로운 경쟁력 펀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집행위 예산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혁신, 생산성, 경제 성장을 소생시키기 위한 EU의 노력을 집중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약 12개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유럽경쟁력기금에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공개됨
 - * 호라이즌 유럽 필라1(ERC 포함), 필라2, 유럽혁신위원회(EIC), 유럽혁신기술 연구소(EIT), 유럽방위기금(EDF), 혁신기금, EU4Health, 우주, 디지털유럽, Invest EU, 단일시장프로그램 등을 포함
 - 이러한 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 일관된 접근 방식을 만들고 EU 자금 구조를 간소화하여, 복잡성, 유연성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FP10에 대한 입법 제안을 놓고 집행위와 회원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예산총국이 제안한 구조 조정은 정책 협상과 EU 입법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최종 구조는 2025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
- 일부 이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과학기술을 EU 경쟁력 의제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음
 - 국제대학연합 CESAER의 Björnmalm은 우주, 국방 연구혁신 기금을 포함하는 '슈퍼펀드(super-fund)'에는 '슈퍼예산(super-budget)'도 필요하다며, "천억 유로나 2천억 유로가 아닌 1조 유로가 넘을 수 있다"라고 말함
 - 한편, 일각에서는 집행위의 연구 책임자에게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으며, LERU 사무총장 Deketelaere는 지난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에 다년도 재정 계획(MFF) 제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달라고 요청

○ 집행위 내부 문서는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EU 과학 기술 프로그램의 재구조 계획을 포함

- 동 문서에는 집행위가 회원국에 EU 기금을 대가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도 포함되어 있음
- Björnholm은 이것이 회원국이 20년 전에 설정한 R&D 지출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를 위한 다섯 번째 자유를 구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

<집행위 내부 문서에 포함된 경쟁력 기금 시나리오>



○ 한편, 폰테어라이엔은 새로운 집행위원단을 발표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스타트업,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으로 자하리에바(Zaharieva)를 임명
- 그러나 R&D 정책은 자하리에바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번영 및 산업 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 세주르네(Séjourné)는 경쟁력 펀드 설립에 기여하고, 기술 주권, 안전 및 민주주의 담당 부집행위원장 비르크넨(Virkkunen)은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고 슈퍼컴퓨팅, 반도체, IoT, 양자컴퓨팅, 우주기술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를 감독할 예정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fp10/commission-prepares-bundle-all-research-and-innovation-money-competitiveness-fund>

- EU 집행위의 '28년~'34년도 1.2조 유로 규모의 차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개정안이 비공식적으로 공개됨
 - ※ EU는 매년 예산 편성을 7개년에 걸친 MFF에 근거(한도 설정)를 두며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노력 중
 - 동 MFF 개정안은 EU의 역외 의존도 완화와 범유럽 산업 부흥 촉진을 목표로 함
- EU 집행위는 현재 회원국별로 시행 중인 약 530개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여 다수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산 지출을 확정할 예정
 - 회원국은 공공주택 보조금 및 농업 보조금 획득을 위해 자국 내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유기농 농업을 촉진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EU 집행위는 대외 지원 및 인건비에 대한 예산 확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
- 한편, 일각에서는 MFF 개정안이 농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방위산업, 역내 핵심 산업별 선도기업을 육성하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비판
- 또한, MFF 개정을 통해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회원국 및 EU 집행위 내 각 총국의 예산에 대한 접근 권한 축소를 우려
 - 동 문서에서는 MFF 예산 절차 관리를 위해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예산 담당 부서, 집행위원장 직속 사무국이 주도하고 기타 관련자나 부서는 단순 참석만 가능한 임시 운영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
- MFF 예산안 집행을 위해 '27년 말까지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② 유럽의회, 연구·보건·교육·기후행동에 중점을 둔 EU 2025 예산결의안 채택(10.14)

-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2025년 EU 예산결의안을 채택
 - 유럽의원(MEP)들은 지난 10월 7일 예산 수치에 대한 투표에 이어 14일 채택된 예산결의안에서 “지정학적 및 제도적 변화, 재정적 압박,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위기, 그리고 사회적 도전의 시기에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유연하고 투자 지향적인 EU 예산은 유럽연합의 정책 이행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증가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이다”라고 강조
- MEP들은 Horizon Europe, Erasmus+, EU4Health, 기후행동, 인프라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상당한 예산 증액을 제안
 - MEP들은 유럽 이사회가 제안한 15억 2,000만 유로의 예산 삭감액을 원래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또한, 보건 문제 해결과 청년층 지원, 농업 지원, 기후행동 강화, 이주 및 안보 수요 관리, 지정학적 및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인접 지역에 대한 EU 지원 강화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증액함
 - MEP들은 2025 예산안에서 전체 지출 수준을 약 2,010억 유로로 설정했으며, 이는 집행위가 제시한 예산 대비 12억 4,000유로 증가한 수치. 지급 지출은 1,535억 유로로 책정됨
- MEP들은 증가하는 회복계획 상환비용이 Erasmus+와 같은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
 -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유럽연합회복기구(EURI)의 상환 비용으로 인해 Erasmus+ 등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U의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 개정으로 EU의 차입 비용을 관리하고 예산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도입된 ‘EURI 캐스캐이드 매커니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의회는 10월 23일 예산위원회의 입장을 본회의(plenary) 표결에 부칠 예정

- 본회의 표결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의장이 서명하기 전에 이사회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3주간의 '조정' 협상을 시작하게 됨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1014IPR24534/eu-budget-2025-focus-on-research-health-education-and-climate-action>

③ EU-이집트, 이집트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공식 협상 개시(10.10)

- EU와 이집트는 이집트를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
 - 지난 3월 17일 유럽연합과 아랍 공화국이 양측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후,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탐색적 회담 끝에 양측은 호라이즌 유럽 공식 협상을 개시
 - 이번 1차 협상은 공식 협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협상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진행될 예정
 - 이집트가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하게 되면 이집트 기관은 EU 회원국과 동등하게 자금을 받고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국가 연구 시스템 개혁과 기관 역량 강화, 기존 EU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한 조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이집트는 EU, 지중해연합 및 아프리카연합 간의 지역 연구혁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정책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호라이즌 유럽에 의해 수립됨
- ※ 지난 3월 폰데어라이엔의 이집트 방문과 공동 선언문 서명 이후, 양측은 2024-2027년 동안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연구혁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74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약속하여, 이집트는 지중해지역 연구혁신 파트너십(PRIMA), Erasmus+ 및 기타 EU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u-and-egypt-launch-formal-talks-association-horizon-europe-2024-10-10_en

4 대학 그룹, 연구 보안에 대한 일관성 강화 촉구(10.15)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유럽 정부가 연구보안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더욱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해 관계자 간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힘
 - 연구 보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주목을 받고 있음. 몇몇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악한 수단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용함으로써 이점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
 - 지난달 중부 유럽 대학 그룹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후, LERU는 10월 14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이 문제가 향후 10년 동안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LERU는 해결해야 할 측면 중 하나로 '서로 다른 유럽 국가와 대학 간의 연구 보안 이행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
 - LERU는 이러한 차이에는 "정부 접근법의 차이"가 포함되며, 일부 정부는 연구 보안을 여러 부처의 책임으로 삼고 있다고 말함
 - 이는 누가 결정을 내리고 연구자들이 여러 다른 부처에서 상충되는 조언을 받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
- 이 그룹은 정부와 다른 이해 관계자가 서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는 "공동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연구 보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실무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우리가 적시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 LERU는 대학이 국제 학생 입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 보안 조치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며 연구 보안에 대한 유럽 전문 센터를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
 - 그러나 LERU는 "연구 자금이 보안 관련 관료주의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신 추가적인 업무별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news.com/rr-news-europe-universities-2024-10-university-group-calls-for-more-consistency-on-research-security/>

5 산업계, EU 내 민간 안보 연구 및 배포를 위한 투자 증대 요구(10.10)

- 산업계는 EU에 연구에서 조달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민간 안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촉구 하고 있음
 - 산업협회 ASD(항공우주안보방위)의 방위보안책임자 Schmitt는 집행위에 모든 안보 관련 EU 이니셔티브를 EU 예산의 안보 및 방위 항목 아래에 단일 유럽안보기금(European security fund)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
 - 이는 호라이즌 유럽의 클러스터3(사회를 위한 시민 안보) 및 내부안보기금 등과 같은 현재의 지원을 포함하여 통합할 수 있음
 - Schmitt는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럽 최종 사용자가 EU가 지원하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전략적 조달 정책을 포함한 일관된 보안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프라운호퍼 방위안보그룹 의장 Beyerer는 다양한 안보 프로그램의 동기화가 더 강력한 시너지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민간 보안 연구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 ※ 클러스터3 예산은 16억 유로로 6개 클러스터 중 가장 작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주로 높은 TRL과 법집행기관, 국경경비대, 시민보호기관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출 중 1/3이 사이버 보안 연구에 사용됨
- 민간 안보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민간과 방위 연구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두 분야 모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에 방위 역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전담 방위위원을 임명
 - 그러나 집행위 이주 및 내무부 총국의 혁신안보연구 책임자 Bessot는 유럽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방위는 동전의 한 면일 뿐이며, “민간 안보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 지난 1월 집행위는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허용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규정을 업데이트할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 프라운호퍼는 이중용도 연구 지원을 위한 옵션의 “종합적인 영향 평가”와 함께 민간 및 방위 연구의 분리를 검토할 것을 요구
- EU의 민간 안보 연구혁신 투자에 대한 조정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짐
- Bessot는 “대부분의 회원국은 민간 안보 연구혁신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으면 회원국 당국이 조직범죄, 테러리즘에 대처하거나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덜 잘 준비되게 만든다”라고 언급
 - 기업들은 또한 유럽의 분산된 안보 시장으로 인해 혁신 기술을 공공 당국에 채택받기 어렵고, 이는 R&D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저해함
 - 프라운호퍼는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분야의 자금 및 연구 주제의 상당한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Beyerer는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의 안보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
 - 현재 여러 회원국의 내무부에 혁신 부서가 있으며, Europol과 Frontex 같은 일부 EU 기관에도 혁신 연구소가 있지만 예산은 제한적. Europol에 위치한 EU 내부안보혁신허브는 이러한 연구소를 모아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며 활용을 촉진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dual-use/call-dedicated-fund-civil-security-research-and-deployment>

6 집행위,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OSC) EU 노드 출시(10.11)

- 지난 10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OSC)의 EU 노드(node)를 출시
 - EOSC EU 노드는 과학 데이터, 출판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여 유럽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오픈 사이언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출시 행사에서는 동 플랫폼의 설계와 기능을 소개하며, 사용자 여정(user journey)을 보여주는 라이브 데모를 통해 다학제 연구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사용자에게 주는 이점을 강조
 - 행사에서는 두 개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패널토론은 EOSC 연합의 발전과 사용자 경험 등 연합의 구축 단계를 다루었고,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유럽 집행위 여러 총국의 연사들이 EOSC의 공통 유럽 데이터 공간 플랫폼과의 통합을 논의하고, EU의 데이터 기반 전략에서의 역할을 강조
- EOSC EU 노드는 10월 21~23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EOSC 심포지엄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 완전히 가동될 예정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technical-launch-european-open-science-cloud-eosc-eu-node-sets-stage-successful-deployment-2024-10-11_en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호라이즌 유럽 제3국 참여현황, 호라이즌 2020 대비 감소 ... 그러나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10.15)

- 데이터에 따르면, Horizon Europe(HE)에서 국제 파트너의 분포가 변화하고 있으며, 제3국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스위스 등 HE 준회원국 가입되었거나 가입 예정인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됨
 - HE는 “가능한 개방적이고, 필요에 따라 폐쇄적”인 국제협력 원칙을 고수
 - Horizon 2020(H2020) 프로그램 전체에서는 6,800여 건의 제3국 참여가 있었으며, HE 상반기 동안에는 3,120여 건의 참여를 기록
 - H2020와 HE 사이에 기니, 아이티, 감비아 등 12개의 새로운 제3국이 추가되었으나 이들 국가는 H2020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HE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23개 파트너를 잃음
 - H2020에는 130개의 국제 파트너가 있었으며, HE에는 현재까지 119개로 중간 단계에서의 참여 수가 H2020을 초과하였으나, 제3국의 참여는 전체 참여의 3.56%로 H2020 대비 여전히 부족
- 그러나 HE의 높은 자금 덕분에 제3국은 더 많은 자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억 5,900만 유로를 수령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과 H2020(FP8) 사이에 제3국에 대한 EU의 기여금이 5억 8,700만 유로에서 5억 유로로 감소했으나, HE에서 이미 3억 5,900만 유로를 지원받는 등 감소 추세가 변화함
 - 이 중 2억 8,900만 유로는 저중소득 국가에 지원되었으며, 이들 국가는 점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가 현재까지 2억 5,100만 유로로 가장 많은 자금을 받았으며, 반면 미국은 5,400만 유로를 수령

	전체 참여(건)	펀딩(백만유로)	참여기관(개)	참여국가(개)
H2020	6,802	500	2,798	130
HE	3,129	359	1,682	119

○ 아프리카 기관들이 국제 파트너로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필라2 보전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

- HE에서 아프리카가 북미를 뒤이어 가장 활발한 파트너로 기록됨
- 아프리카의 전체 참여율이 H2020의 0.68%에서 HE 1.03%로 급증
- 국제 참여의 절반은 마리퀴리(MSCA)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미국의 경우 MSCA 참여 비율이 전체의 66%에 달함. 한편 아프리카의 경우 주로 필라2 보전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
- 필라1에서의 참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호주가 연구인프라 분야에서 두 번째로 활발
- 필라2에서는 일본이 클러스터3 파트너로 가장 자주 등장하며, 남아프리카는 클러스터4(디지털·산업·우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중국은 클러스터6(식품·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환경)에서 1위를 기록
- 필라3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일본, 그린란드, 홍콩 등 몇몇 국가만이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첫 번째 공고에 참여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rizon-europe/non-associated-countries-participate-leads-get-more-money-horizon-data-says>

② 집행위, 회원국의 GDP 대비 유럽연구위원회(ERC) 및 마리퀴리(MSCA) 프로그램 참여 결과 발표(10.15)

-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는 GDP 대비 ERC와 MSCA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많이 받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조명
 - ※ ERC 강국인 영국,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등 비EU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
 - 지난주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일련의 중간 평가 보고서 중 [최신 자료](#)를 발표
- ERC에서 네덜란드가 GDP 대비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MSCA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가 GDP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둠
 - ERC 프로그램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일부 과학강국과 비교적 취약한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 간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줌
 - 불가리아, 라트비아, 몰타의 경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ERC 보조금을 받지 못함
 - 한 ERC 대변인은 GDP와 성공률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으며, GDP 대비 공공 연구비 지출이나 피인용 횟수 상위 1% 혹은 10% 논문 수 등이 더 적절한 지표로 이는 ERC 지원금 비율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주장
 - MSCA 프로그램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경제 규모 대비 적은 지원금을 받았으며, 스페인의 경우 ERC 보조금 경쟁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둠
 - 또한, ERC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등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ropean-research-council/european-research-council-winners-and-losers-horizon-europe>

③ EIC Accelerator 참여 현황(10.10)

- 유럽혁신위원회(EIC)가 2024년 10월 3일 마감된 EIC Accelerator 공고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1,211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EIC 출범 이후 역대 최다 제출 건수를 기록
 - 동 공고에서 EIC Accelerator에 요청된 예산은 총 88억 유로에 달함
 - 898개의 기업(전체 신청자의 74%)이 보조금과 지분투자를 함께 요청하는 등 혼합 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 32%의 제안서가 여성 주도 기업(CEO, CTO, 또는 CSO)에서 제출됨
 - 신청서는 35개국(13개 참여확대국가 포함)에서 제출되었으며,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
 - 제안서는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 중이며, 최종 결정은 2025년 2월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
 - EIC Accelerator에 대한 새로운 공고는 2025년 EIC 워크프로그램에서 발표될 예정(2024년 10월 말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

출처

https://eic.ec.europa.eu/news/eic-accelerator-october-cut-record-number-proposals-submitted-eics-launch-under-horizon-europe-2024-10-10_en

④ Erasmus Days 2024 행사 개최

- 10월 14~19일 동안 유럽 전역에서 Erasmus Days 행사가 개최될 예정
 - Erasmus Days 행사는 유럽연합의 교육 프로그램인 Erasmus+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념하는 연례행사로, 유럽 전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세미나, 사진 전시회, 컨퍼런스 및 소셜미디어 챌린지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됨
 - 올해에는 2024년 파리 올림픽과 연계하여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며, "Ready, steady, go!"를 스포츠 테마의 슬로건으로 사용하여 페어플레이, 포용성 및 문화 교류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벤트를 개최
- ※ 2023년 Erasmus Days 행사에서는 53개국에서 9,600개 이상의 이벤트가 개최됨

출처

<https://www.erasmusdays.eu/latest-news/article-title/>

5 (SB편딩레이더) 정신건강 관련 주요 공고(10.15)

- EU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EU4Health 및 호라이즌 유럽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연구와 치료 개선을 지원
 - 지난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1992년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됨
 - 이전의 여러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2023년 EU는 정신건강을 광범위한 건강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정신건강 전략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예방, 치료 접근성 향상, 낙인 효과 감소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신건강에서 사회적 불평등, 고용, 교육의 역할을 다룸
 - 20개의 개별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자금 수단을 통해 12억 3천만 유로의 EU 자금을 회원국에 지원

EU4Health 프로그램 ([EU4H-2024-PJ-03-1](#))

- EU4Health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대한 포괄적이고 예방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공고를 개시
- 200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월 21일

스페인 La Caxia 재단 ([CaxiaResearch Health Call](#))

- 신경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생물의학 및 건강 연구를 지원
- 개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50만 유로, 연구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100만 유로가 지원되며, 신청 마감일은 11월 20일

영국 Innovate UK ([Mindset extended reality](#))

- Innovate UK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총 370만 파운드를 지원(프로젝트 당 20만-30만 파운드)
- 공고는 10월 28일 개시되어 2025년 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영국 의학연구위원회 ([MRC Grant](#))

-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은 신경과학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1월, 5월, 9월에 접수가 마감됨
- 다음 마감일은 2025년 1월 9일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정신건강과 재정적 결정 간의 관계 탐구 프로젝트

- EU 지원 IBEP 프로젝트는 경제학, 정신의학 및 실천 철학을 융합하여 정신적인 상태와 경제적 결정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밝히고자 함
 -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인의 복지와 생산성 및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알리는 것이었음
 - IBEP (Individual Behaviour and Economic Performance) 프로젝트는 에스토니아의 Tallinn 공과대학이 주도하고 이스라엘의 Tel Aviv 대학과 핀란드의 Aalto 대학, Helsinki 대학이 파트너로 참여
-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재정적 결정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독특한 학제간 접근 방식을 취함
 - IBEP의 코디네이터인 Aaro Hazak는 "우리 프로젝트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전적 배경과 정신건강 결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활용했다"라고 설명
 - "이것은 정신건강이 경제적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더 심도 있는 탐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다. 이 연구는 더 나은 의사 결정과 보다 포괄적인 경제를 촉진하는 정책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023년 8월에 완료된 이 프로젝트는 정신 건강이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증거를 제공
 -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다양한 정신의학적 특성을 가진 개인 간의 경제적 결정에 초점을 맞춤
 - 이 발견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

- "교육과 디지털 역량도 경제적 성과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특정 개입이 다양한 개인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Hazak)
- **IBEP 프로젝트에서 얻은 통찰력은 특히 개인의 웰빙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
 - 정신건강과 경제적 결정 간의 연관성을 이해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개인차를 고려하는 전략을 개발하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육성할 수 있게 됨
 -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BEP는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이 위임한 Tax Think Tank에 기여했으며, 2022년 6월 탈린에서 개최된 정신건강, 회복력 및 경제적 행동에 대한 부문 간 지식 이전 워크숍에도 함께 참여함
 - 워크숍, 직원 교류, 멘토링, 데이터 랩 및 컨퍼런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IBEP 활동 세트는 팀 내의 학제 간 연구 역량 구축을 강력히 지원
 - 이는 정신건강, 재정적 결정 및 경제적 결과의 교차로에서 새로운 주제에 초점을 맞춘 공동 국경 간 연구 그룹의 설립을 촉진
- **5개의 박사학위 논문이 IBEP 협력의 혜택을 받음**
 - 그중 하나는 유연한 근무 조건이 생산성과 개인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인지적 특성이 시간 관리와 자기 훈련에 영향을 미쳐 개인 간에 유연한 근무의 혜택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시작된 협업은 여전히 활발하며, 정신 건강과 유전적 요인이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
 - Hazak는 헬싱키 대학교 의학과와 알토 대학교 재무부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명한 연구자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 팀은 이 분야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어 영향력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 IBEP 프로젝트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은 복잡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줌
-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합함으로써 유럽 전역에서 더 나은 건강, 경제적 결과 및 포용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

IBEP 프로젝트

- 기간 : 2020.09.01. ~ 2023.08.31.
- 예산 : 약 900,000.00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TALLINNA TEHNIKAÜLIKOOL (에스토니아)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exploring-relationship-between-mental-health-and-financial-decisions>

2 [연구모음]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미래 섬유 산업

- 이 연구모음은 EU가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이며 순환적인 섬유 부문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연구혁신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 섬유 산업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자원의 주요 소비처이자 온실가스의 상당한 배출원이기도 함
 - 섬유는 현대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의류와 신발뿐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및 공공건물에 카펫, 커튼, 및 직물을 제공
 - 섬유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부문 중 하나이며 유럽의 제조 기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EU 내에서 이 부문은 13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출을 1,670억 유로, 수출은 670억 유로가 넘음
 - 유럽 시민들은 매년 평균 26kg의 섬유를 사용하고 11kg을 버리며, 중고 의류는 EU 외부로 수출할 수 있지만 거의 87%가 소각되거나 매립지로 보내짐
 - 현재 EU에서 섬유 생산과 소비는 식량, 주거, 운송 다음으로 환경과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에는 천연자원, 물, 토지 및 화학 물질의 남용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방출 등이 포함됨
- EU의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은 친환경 디자인, 폐기물 및 오염 방지, 안전하고 생물학적 기반 소재, 순환적 재료 흐름 및 책임 있는 공급망에 중점을 둠
 - 이 전략은 의류 대여, 재사용 및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품 설계, 소비자에게 더 오래 지속되는 더 나은 품질의 옷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포함
- 이에 대응하여 EU는 섬유 지속 가능성 및 순환성에 대한 연구혁신 프로젝트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지원

- 수선을 확대하고, 수거 및 분류를 개선하고, EU 산업의 섬유 재활용 능력을 더 확대하고, 섬유 대 섬유 재활용 및 재활용 섬유 함량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Horizon 과제 공고가 게시됨
- 이는 EU가 '유럽 Green Deal'의 일환으로 EU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환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는 결과
- '지속 가능한 섬유 생태계를 위한 유럽 실천 공동체 네트워크'인 ECOSYSTEEX는 참여 프로젝트 간에 EU 연구혁신의 최신 개발 사항과 결과를 공유
 - 정책 입안자 및 공공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섬유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을 지원
 - 또한 관심 있는 공공 전문가 커뮤니티가 EU 연구혁신 프로젝트의 최신 개발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포 활동을 조직
- 이 연구모음은 전체 섬유 생산 및 소비 주기에 걸쳐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6개의 Horizon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
 - Glaukos 프로젝트는 바이오 기반 섬유 섬유와 섬유 코팅을 개발하여 직물 및 어구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해결
 - New Cotton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여 버려진 직물 면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독특한 새로운 섬유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척
 - HEREWEAR는 해초, 거름, 짚의 세 가지 폐기물을 활용해서, 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조 셀룰로오스 섬유를 생산
 - MY-FI 프로젝트는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섬유 산업용 군사 섬유로 만든 부직포(군사 가죽)를 개발
 - 한편, SCIRT는 고속으로 직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다듬는 기술과 의류의 실제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는 True Cost Calculator를 개발하여 재활용 원사의 품질을 개선

- 마지막으로, TRICK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성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섬유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섬유 가치 사슬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
-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EU가 경쟁력과 번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Glaukos 프로젝트

- 기간 : 2020.06.01.~2024.05.31.
- 예산 : 약 4,997,167.50 유로 (EU 4,185,880.00 유로 지원)
- 총괄 : BIO BASE EUROPE PILOT PLANT VZW (벨기에)

New Cotton 프로젝트

- 기간 : 2020.10.01.~2024.03.31.
- 예산 : 약 8,813,414.60 유로 (EU 6,745,801.25 유로 지원)
- 총괄 : INFINITED FIBER COMPANY OY (핀란드)

HEREWEAR 프로젝트

- 기간 : 2020.10.01.~2024.09.30.
- 예산 : 약 7,044,208.60 유로 (EU 6,158,830.00 유로 지원)
- 총괄 : CENTRE SCIENTIFIQUE & TECHNIQUE DEL'INDUSTRIE TEXTILE BELGE ASBL (벨기에)

MY-FI 프로젝트

- 기간 : 2020.11.01.~2024.10.31.
- 예산 : 약 6,538,922.78 유로 (EU 5,402,393.00 유로 지원)
- 총괄 : MOGU SRL (이탈리아)

SCIRT 프로젝트

- 기간 : 2021.06.01.~2024.11.30.
- 예산 : 약 9,211,813.01 유로 (EU 7,996,543.98 유로 지원)
- 총괄 : VLAAMSE INSTELLING VOOR TECHNOLOGISCH ONDERZOEK N.V. (벨기에)

TRICK 프로젝트

- 기간 : 2021.05.01.~2024.10.31.
- 예산 : 약 9,600,448.50 유로 (EU 7,997,853.75 유로 지원)
- 총괄 : FRATELLI PIACENZA S.P.A. (이탈리아)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53640-the-future-of-textiles-achieving-a-circular-economy>